

## “헬조선을 꿀조선으로” 응답하라 청년이여

광주청년 65%가 “한국은 살기 힘든 나라”

결도는 청년정책, 95%가 “잘 모른다”

광주 계속 살 것 41%... ‘결혼 꼭 하겠다’ 17% 뿐

광주 청년 65%는 대한민국을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5%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정책이 당사자인 청년층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줬다.

광주지역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취업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대부분이었고 기성세대의 부조리를 꼬집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청년들은 스스로를 격려하며 좌절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지난 11월 초 2주간에 걸쳐 광주지역 19~39세까지의 남녀 264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상보 2면>

건강, 거주형태, 경제, 청년정책, 청년수당, 아르바이트경험, 직업 만족도, 결혼관 등을 묻는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중 23.4%인 62명이 대한민국을 청년이 ‘살아가기 아주 나쁜 나라’로 여기고 있었으며 42%인 111명은 ‘살아가기 나쁜 나라’라고 응답했다.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

생을 포함한 미취업 청년들(취업자 제외 164명)은 ‘졸업후 취업’ 또는 ‘취업’이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으며 ‘돈 문제’라는 응답이 33.6%로 뒤를 이었다. ‘이성문제’ ‘외모’ ‘건강문제’ 등이라는 답변의 비율은 모두 한자리 숫자였다.

미취업자들에게 희망하는 직장의 종류를 묻는 결과 ‘중소기업’이 25.0%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20.1%, ‘대기업 또는 공기업’ 18.2%, ‘전문직(교사포함)’이 17.6%였다. ‘창업’은 13.4%에 그쳤다.

이들에게 다시 “준비중이거나 마음먹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가”를 묻는 결과 ‘매우 그렇다’는 7.3%, ‘그렇다’는 31.1%, ‘모르겠다’는 45.1%, ‘잘될 것 같지 않다’는 17.6%, ‘불가능하다’는 2.4%로 답해 절반 이상이 장래에 대해 자신감을 잃고 있는 양상을 보여줬다.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62.1%인 164명이 ‘하나도 모른다’고 답했으며 33.4%인 88명이 ‘한두가지는 안다’고 답해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이 95%에 달했다. ‘알고 있다’나 ‘여러가지는 잘 안다’는 답변은 7.1%에 불과했다. <2면으로 계속>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살기 힘든 나라다. 취업난·생활고·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젊음은 억눌리고 있다. 그러나 5·18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인 시민들처럼 청년들은 결코 좌절을 말하지 않는다. <광주일보 제공>

### 청년 목소리 정책에 속속 반영

### 광주 청년위 내년 활약 기대 크다

지난 2월 출범한 ‘제2기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위원장 이현영)’가 광주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 청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2기 청년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청년CEO, 취업자, 문화 및 시민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47명으로 구성, 관심 분야에 따라 경제·일자리, 문화·삶의 질, 교육·진로, 참여·소통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해왔다.

청년위원회는 20여 차례 전체·분과별 회의를 열어 청년의제를 발굴하고 5월에는 ‘청년의 거리’행사가 열린 5.18민주광장에서 분과별 연구과제인 ▲경제·일자리 분과, ‘야시장 활성화 방안’ ▲교육·진로 분과, ‘청년들의 진로 탐색’ ▲문화·삶의 질 분과, ‘숨어있는 예술가 릴레이 인터뷰를 통한 홍보’ ▲참여·소통 분과, ‘청년 소환제’란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연구활동 결과에서 나온 ‘빛고를 청년 야시장 사업’, ‘포레 진로공유 플랫폼 ‘내꿈내꿈 플랫폼’ 개설, ‘청년 소환제 도입’, ‘청년 릴레이 인터뷰’ 등의 청년의 눈높이에서 나온 분과별 정책제안과 ‘광주청년 문화카드 지급’ 등 개인별 아이디어 일부는 ‘청춘대학’ 등에 반영됐다.

또한, 7월 광주청년축제 기간에 대구시 청년위원회가 광주를 방문하고, 10월에는 대구청년주간에 광주청년위원회가 대구를 답방하는 등 청년 간 교류를 통한 달빛(달구벌+빛고을) 동맹을 강화하고, 구청의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10월에 광주에 열린 청년도시컨퍼런스의 청년당사자회의에 참석해 ‘이 시대 대학의 역할을 말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이는 등 청년위원회가 청년정책 민·관협치를 위한 소통창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유승준학생기자>

### 일자리 가장 많은 곳은 ‘광산구’

### 이직률 낮고 청년지원책 풍부

광주 5개 자치구 중 광산구에 일자리가 가장 많고 이직률은 가장 낮게 조사됐다. 또 일자리의 종류에서도 제조업 등 공공업의 비율이 5개 자치구중 광산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관련기사 6면>

지난 2일 광주지방 노동청이 발표한 ‘2016년 광주전남 빈 일자리, 노동이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광주의 총 일자리 44만5천844개중 광산구는 12만1천485개(27.2%)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북구(12만1천476개) 나머지 서구(10만6천231개), 동구(5만1천705개), 남구(4만4천947개)순이었다.

이직률은 광주 전체가 3.7%인데 비해 광산구와 북구가 3.2%로 가장 낮고 서구 4.0%, 동구 4.2%, 남구 5.4%순이었다.

일자리의 종류에서도 광산구는 자영업 건설업 음식 숙박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광산구 일자리중 제조업 일자리는 4만6천261명으로 구 전체 일

자리 수의 38.0%를 차지해 광주평균 16.8%를 크게 상회했다. 북구가 14.9%, 서구 8.4%, 남구 3.3%, 동구는 1.6%에 그쳤다.

공단이 많고 청년인구수가 가장 많은 광산구는 이밖에도 고용정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10월 19일 자치단체가 고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나가는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평가에서 종합대상, 대상에 이어 전국 3위 그룹인 최우수상을 수상, 고용노동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1억원을 받았다.

광산구는 또 지난달 5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구 종사자 생활임금액을 시급 8천6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공공기관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132%에 이른다. 적용 대상은 광산구에서 직간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구청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108명이다. 광산구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오승준학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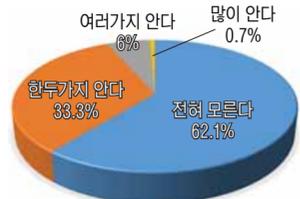
■한국은 청년들이 살기에 어떤가



■광주는 청년들이 살기에 어떤가



■정부·지자체 청년 지원책 알고있나



■당신은 앞으로 어디서 살 생각인가



**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교육부선정 프라임 국책대학!

**취업 아우토반!**

**호남대학교 신설 미래자동차공학부**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신입생정시모집

기간: 2016.12.31(토)~2017.1.4(수) 상담문의 062-940-5495

